

안철수 대표 사퇴 “정치는 책임지는 것”

국민의당 창당 이후 최대 위기...박지원 비대위원장 체제 전환
총선 홍보비 파동에 천정배 대표와 동반 퇴진 “정권교체 헌신”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4월 총선에서의 홍보비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29일 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했다. 당이 아직 제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사실상 ‘대주주’이자 간판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당은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의 사퇴에 따라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지지를 통해 20년 만에 3당 체제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 그 때문”이라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천 대표도 “저희 두 사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직을 사퇴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대표는 지난 2월2일 창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지 149일 만에 물러났다. 안 대표는 전남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

현 사무부총장 등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해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결국, 이날 2시간 20여분 동안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강력한 만류에도 사퇴의 뜻을 꺾지 않아 두 대표가 동반 퇴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장일치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원내대표는 우선 빠른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구성 안건에 대해서 최고위와 협의한 후 의결 절차를 거쳐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3당 체제가 안착되기도 전에 안 의원이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그의 대권기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당이 내부 결집을 통한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인지,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휩쓸릴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결집이 우선돼야 한다”며 “위기를 도약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 국민의당의 저력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모든 책임은 제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리베이트 의혹’ 책임을 지고 대표직 동반사퇴를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대만큼 성과 못내는 문화전당 정부 예산지원 의지 부족 때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지적
“수영대회 내년 예산도 미반영”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애초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관심 및 예산 지원 의지가 부족한 때문으로 지적됐다.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시아문화전당만의 차별화된 운영 프로그램과 양질의 콘텐츠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지원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문화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조성사업 등 4개 분야에 5조3000억원(국비 2조7679억원·시비 7896억원·민자 1조7337억원)을 투자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획 대비 22.1%에 불과한 1조1705억원만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국비는 1조489억원이 투입됐고, 투입된 국비도 87%(9128억원)가 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비로 투입되는 데 그쳤다.

반면,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7대 문화권 조성 등 연계 사업들은 추진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3년까지 6000억원의 예산 계획이 세워진 문화도시기반 구축사업과 3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관광활성화

문화전당·문화중심도시 사업 예산 (자료: 송기석의원실)

계획	5조 2912억원	국비 2조 7679억원	시비 7896억원	민자 1조 7337억원
집행	1조 1705억원 (계획대비 22.1%)	국비 1조 489억원 (문화전당 건립·운영비 9128억원(87%))		

7대 문화권 조성 등 연계사업 - 문화도시기반구축 6000억원 - 관광활성화 사업 3700억원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17년 국비요구 74억 - 문체부 반영 19억

사업에는 지금까지 단 한푼도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매년 600억원 가량의 전당 운영비를 핑계로 광주에서 요구하는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마저 한 해 50억원으로 제한해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또 이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정부의 예산 반영 의지도 지적했다. 그는 “광주에서 제출한 2017년도 국비 요구액 74억원을 문체부가 대폭 삭감해 19억원만 반영한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지원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획재정부가 최근 이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예산은 한푼도 없는 셈이다. 광주시는 다음달 3일 시작되는 기재부 2차 심사에 수영대회 관련 국비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의료인력 절반 이상 5개 市에 집중

도시·농어촌 의료 서비스 격차
완도, 1시간 병원급 접근 불가

전남지역 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 서비스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절반 이상이 22개 시·군 가운데 5개 시에 몰려 있으며, 의료 병상 역시 마찬가지였다. 농어촌에서 병원급에서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잦았다.

29일 전남도가 마련한 ‘제1차 공공보건

의료 시행계획’에 따르면 22개 시·군에 공급된 총 병상수는 3만9895개로, 목포가 7557개로 가장 많고, 순천(5819개), 나주(4140개), 여수(4058개), 광양(1011개) 등이 뒤를 이었다. 5개시가 56.6%인 2만 2585개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완도(141개), 진도(210개), 신안(220개), 장흥(348개), 강진(394개), 곡성(401개) 등 6개 군은 병상수가 500개 미만이다.

의료인 수에서도 전체 의사(2936명) 중에서 목포(461명), 순천(481명), 여수(384명), 나주(180명), 광양(122명) 등 5개 시가

55.4%를 차지했다. 의사는 진도(32명), 치과 의사는 구례(7명), 한의사는 강진(12명)이 가장 적었다.

의료기관, 의료인 수가 지역마다 차이가 크에 따라 도민들 간에도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1시간 내 2차 의료서비스기관(병원급)에 접근이 불가능한 환자 비율을 보면 완도가 56.5%로 가장 높고, 장흥(20.2%), 진도(14.7%), 고흥(10.5%) 등이 10%를 넘었다. 5개 시와 인근 군은 1%를 밑돌았다.

전남도는 올해 총 659억원을 투자해 지역 간 균형잡힌 공공보건으로 제공 체계 구축, 필수분야에 보건 의료서비스 적정공급 등에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위기의 지역대학-인력공장 전략 ▶6면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8면
파독 간호사-순천출신 이영숙씨 ▶18면
KIA 임창웅 1군 등판 임박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터키 이스탄불 공항서 테러...36명 사망·100여명 부상

28일(현지시간) 오후 10시경 터키 최대도시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3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6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아직 없지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자칭 ‘건국 2주년’(6월 29일)을 앞두고 저지른 테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비날리 이데를 터키 총리는 이날 테러로 36명이 숨졌으며 사망자는 상당수가 터키인 이지만 외국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범 3명이 택시로 공항에 와 총격을 벌인 뒤 자폭했다며 초기

터키 이스탄불 공항 자폭테러 발생

조사 결과 IS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테러와 관련 터키 측은 한국인 피해자는 없다는 내용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디자인을 밝히다

The new generation CLS-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LS 400 2,996cc, 1,809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0.0km/ℓ(도시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77g/km *CLS 63 AMG 5,461cc, 1,93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6km/ℓ(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9.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38g/km *CLS 63 AMG 4MATIC 5,461cc, 2,01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1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6g/km *CLS 63 AMG S 4MATIC 5,461cc, 1,99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8.6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5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